

SK에너지, 정유설비 운영기술 수출

PetroVietnam과 8000만달러 계약 체결 ... 2014년까지 관련기술 전수

SK에너지가 베트남에 정유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기술을 8000만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에너지는 9월15일 베트남 국영석유기업 PetroVietnam과 정유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9월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년간 베트남 중부 Dung Quat 산업단지에 위치한 정유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상업운전 ald 생산기술 등을 전수하게 된다.

SK에너지는 울산컴플렉스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가 100여명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으로 베트남에 대한 정유설비 운영기술 수출로 최소 7800만달러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Dung Quat 소재 정유설비는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2009년 2월에 완공됐다. 하루 15만배럴의 정유 처리능력과 7만배럴의 중질유 분해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0월 정상가동을 목표로 시험운전에 들어갔다.

PetroVietnam은 그동안 동유럽 기술진에게 정유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겨왔으나 잦은 문제가 발생하자 SK에너지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5>